

“기업인 건의, 빈틈없이 이행을”

문 대통령, 대기업·중견기업인 간담회 관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즉각 가동... 분야별 신산업 육성안 마련
규제샌드박스 사례 대거 발굴... 규제혁신 성과 조기 창출 지원
노영민 비서실장 “현장·사전 질문 통해 나왔던 질문 답 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전남 대기업·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빈틈 없이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어제 기업인과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었다. 그동안 반도체 값이 이래적으러 높았던 것이지,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반도체 투자, 공장증설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수석이 조금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장과 사전 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질문 하나하나에서 다 답을 주겠다”며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이행 계획을 함께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즉각 가동하고, 수소경제·미래자동차·바이오·에너지 신산업·비메모리 반도체·부품소재 장비 등 분야별 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키로 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거 발굴해 조기에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토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이를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원전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산업의 육성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는 대한상회가 사전 질문을 통해 수렴한 기업인들의 건의사항과 간담회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취합해 답변을 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어제 현장에서 16명의 기업인 건의가 있었는데, 모두 장관 이름으로 건의자에게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며 “대화 중에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이 제안하고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를 검토하고,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R&D)을 확대키로 했다.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

원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기업들로부터) 사전 질문을 30건 받았다고 한다. 그 중 12건은 어제 현장 질문에서 소화가 됐다”며 “나머지 18건을 포함해 모두 30건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대한상회에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서면질의가 무기명으로 대한상회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 보내지 못하고 대한상회에 보내서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0건 가운데 전남 처리가 안된 건의는 산업별 지원(8건), 지역 지원(3건), 고용 관련(2건), 세계 관련(3건), 환경 관련(2건) 등 18건이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뉴시스



약수하는 강기정-노영민-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과 강기정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전북도, 23일까지 승강기 특별안전점검 실시

대형마트·백화점·터미널·기차역 등 10개소

전북도는 17일부터 23일까지 설 명절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도, 시군, 승강기안전공단 합동으로 승강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 10개소에서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98대를 대상

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지, 매월 1회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는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엘리베이터는 안전센서 및 비상호출장치, 에스컬레이터는 역주행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이상 없이 작동하는지 여부와, 사고 대응요령 및 비상연락망 등이 갖춰져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안전점검 기간에는 관리주체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승강기는 누구나 하루 한번 이상은 사용하게 될 만큼 일상생활의 주요 편의시설로 자리 잡았으나, 이용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등 안이한 의식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미 이수나 승강기 정기검사 기한 초과, 자체점검 소홀 등 관리 부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승강기안전공단의 전문가를 통해 현장에서 승강기의 안전한 이용방법과 올바른 관리방법, 사고·고장 시 대응요령과 승강기 점검요령 등 승강기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 전북도, 가속화 행정력 집중

연말까지 90개 식품기업 유치·10월 종자박람회 개최
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 착공·농식품 마케팅 활성화

올해 농생명산업 선도기반 확충의 해로 내세운 전북도가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 가속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전북도 농림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사업화와 농생명식품 R&D 활성화 기반 확충, 농생명관련 주요행사 성공개최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농생명식품산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식품기업 90개(전체 목표 150개 대비 60%) 유치를 목표로, 타깃 기업별 채널을 활용해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간편성·건강 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미래형 유망기업의 투자유치에 나서고 기업지원시설을 이용한 입주기업 성공사례를 이용해 전국 식품기업에게 적극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도 추진할 계획도 마련했다. 종자수출 확대를 통한 미래 성장산

업으로 종자산업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 ‘제3회 국제종자 박람회’를 개최해 국내·외 기업, 해외바이어 초청 등 그 간 성공개회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행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발효미생물 인프라 확충으로 미생물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 착공에 나서고 오는 2020년 시범 가동 후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고부가 농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올해로 17회째인 국제발효식품엑스포 등 농수산 식품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조호일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지난해가 아시아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초석을 다지는 해였다면, 올해는 식품기업, 유관기관과의 소통·협업을 통해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 54억원 부과

전북도,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등 전년보다 4억원 증가

전북도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22만건에 5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억원(9.4%) 증가한 것으로 주요사유는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증가와 면허건수 자연증가분(1만7천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여 인구 50만이상인 전주시는 1만8,000원에서 6만7,500원, 기타 시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 군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 가능

하고,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도 납세자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 전용가상계좌,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북도 과속기 자치행정국장은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자칫 납부시기를 놓칠 수 있는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범죄신고 112 · 화재신고 119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